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2019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PM_{10})와 초미세먼지($PM_{2.5}$)의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17년에 각각 25.1%, 8.6%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뚜렷하게 상승하였으며,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정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환경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환경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밤 시간대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2012년부터 떨어지다가 2018년에 다소 높아졌는데, 대기(영역별), 도시(지역별), 청년층(연령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환경영역별, 지역별, 연령별로 환경상태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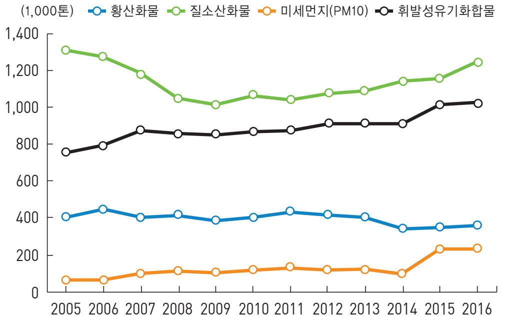
대기환경

대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비해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후반까지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_{10})의 배출량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특히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Ⅸ-1).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6



주: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생물성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제외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표 Ⅸ-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7

(%)

연도	이산화질소(NO_2)		미세먼지(PM_{10})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일평균
2007	69.0	64.6	24.4	3.1
2008	63.5	63.9	28.7	1.3
2009	70.9	63.5	40.2	2.6
2010	71.5	62.6	48.1	3.4
2011	72.8	68.2	55.6	1.7
2012	78.9	72.9	76.8	38.6
2013	73.9	66.0	62.5	7.9
2014	71.9	65.6	61.2	8.2
2015	76.9	71.8	65.6	10.7
2016	82.3	82.7	71.6	10.3
2017	85.8	82.0	79.9	25.1

주: 1) 환경기준 달성률은 전국 유효측정소 중 환경기준을 100% 달성한 측정소의 비율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2010년 이후에는 주요 대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_{10})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2007년의 이산화질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69.0%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처음으로 80%대를 넘어섰다. 미세먼지(PM_{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7년 24.4%에서 2017년 79.9%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히 3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표 Ⅸ-1). 2015년에 전국 단위의 공식적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 2017년 연평균 및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각각 60.9%와 8.6%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권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 피해가 부각되면서, 2015년부터는 기존의 미세먼지(PM_{10}) 외에 초미세먼지($PM_{2.5}$)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경보기준이 마련되었다. 2017년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PM_{10}) 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188회와 17회가 발령되었는데, 주의보와 경보 모두 경기, 인천, 경북,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 경보는 1회만 발령되었으며, 주의보는 미세먼지 주의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경북,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표 Ⅸ-2).

〈표 Ⅸ-2〉 지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 및 횟수, 2017

지역	미세먼지(PM_{10})				초미세먼지($PM_{2.5}$)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전체	25	188	4	17	42	128	1	1
서울	10	6	-	-	10	5	-	-
부산	5	12	-	-	6	4	-	-
대구	4	3	-	-	4	2	-	-
인천	14	25	1	4	17	19	-	-
광주	8	5	-	-	12	7	-	-
대전	3	9	3	2	2	2	-	-
울산	2	2	-	-	2	2	-	-
세종	6	6	1	1	5	3		
경기	22	40	1	4	23	30	-	-
강원	18	23	1	2	21	17	1	1
충북	10	11	-	-	11	10	-	-
충남	8	6	1	1	2	1	-	-
전북	9	4	-	-	10	6	-	-
전남	4	7	2	1	-	-	-	-
경북	5	23	2	2	18	18	-	-
경남	4	3	-	-	-	-	-	-
제주	4	3	-	-	3	2	-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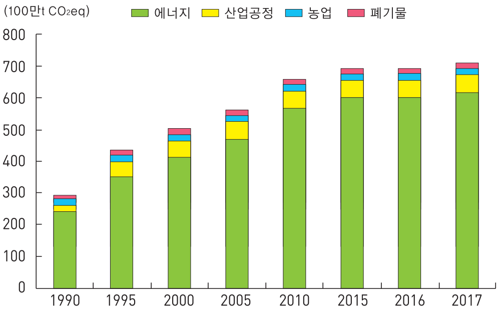
기후변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그 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OECD 회원국 중 6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1년부터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다. 1990-20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25.1% 증가하였으나(연평균 증가율 4.1%), 2010-2017년 동안에는 7.8%만 증가하였다(연평균 증가율 1.1%).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0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다(그림 Ⅸ-2).

[그림 Ⅸ-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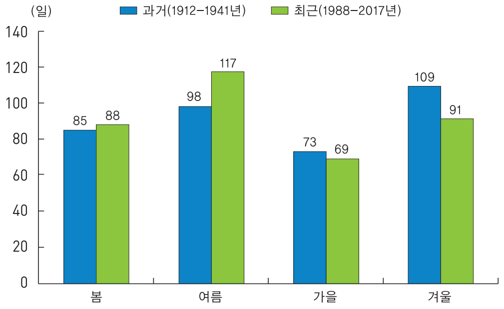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9.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외에도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의 예가 기온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30년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 보다 1.4℃ 상승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듯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그림 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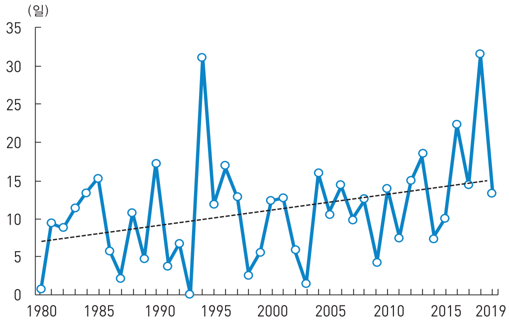
[그림 Ⅸ-3] 계절길이 변화, 1912-2017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

특히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최고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Ⅸ-4). 열대야 일수도 1980-1989년 평균 3.5일에서 2009-2018년에는 평균 9.6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Ⅸ-4] 폭염 일수, 1980-2019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각 연도.

물환경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요인은 통상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로 분류된다. 생활하수 발생량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분뇨 발생량은 2014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통계가 안정화되는 2007년부터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일일 500만m^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2년에 급증한 후 일일 17만m^3 대에 머물러 있다(표 Ⅸ-3).

〈표 Ⅸ-3〉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7-2016

(1,000㎥/일)

연도	하수	분뇨	산업폐수	가축분뇨
2007	16,745	45	5,352	154
2008	17,113	46	4,557	128
2009	16,681	49	4,622	136
2010	16,111	46	5,229	136
2011	18,661	42	5,269	129
2012	15,722	42	5,662	177
2013	15,148	38	5,299	173
2014	14,401	36	4,966	176
2015	14,975	38	4,951	173
2016	14,393	41	4,621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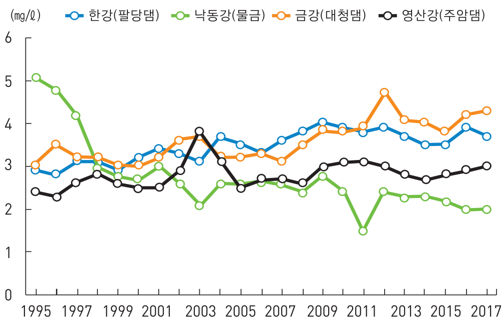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2019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2019.

지난 1991년과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ℓ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ℓ에서 2017년 2.0㎎/ℓ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주암댐)의 COD는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에 더 악화되었다(그림 Ⅸ-5). 총인 농도의 경우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낙동강(물금)이 2010년부터 뚜렷하게 개선되어 2017년에는 0.033㎎/ℓ로 좋음 수준에 달했다.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7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ℓ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ℓ 이하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2013년 0.94㎏에서 2017년 1.01㎏으로 증가).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Ⅸ-4).

생활폐기물은 물질성상에 따라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2017년에 각각 일일 9,345톤 및 8,164톤이 배출된다. 그런데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유리류나 금속류의 경우에는 분리배출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표 Ⅸ-5).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생활폐기

〈표 Ⅸ-4〉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7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487
2013	48,728	148,443	183,538	12,408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2
2015	51,247	155,305	198,260	13,402
2016	53,772	162,129	199,444	13,783
2017	53,490	164,874	196,262	14,905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표 Ⅸ-5〉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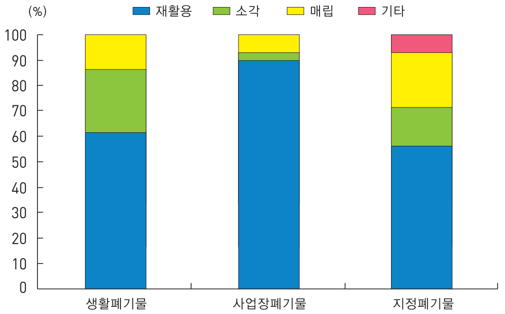
(톤/일)

연도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2007	5,586	5,476	405	2,280	2,859	2,378	570	2,455
2008	5,136	5,250	390	2,340	2,703	2,395	439	2,679
2009	4,915	5,164	425	2,264	2,817	2,336	376	2,998
2010	4,783	4,810	411	2,035	2,641	2,234	337	2,793
2011	4,940	4,301	430	1,908	2,644	2,338	330	2,706
2012	5,247	4,486	444	1,866	3,010	2,664	335	2,973
2013	5,383	4,128	499	1,797	3,127	2,574	346	2,890
2014	5,410	4,485	536	1,792	3,370	2,667	392	2,681
2015	5,445	4,514	623	1,693	3,739	2,654	448	2,440
2016	5,632	4,603	561	1,663	4,312	2,960	434	2,487
2017	5,194	4,151	608	1,572	4,601	3,563	399	2,161

주: 1) 종량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해 배출된 것을 의미하며,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것을 의미함.
출처: 환경부, 「2017 환경통계연감」, 2018.

물의 61.6%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4.9%)되거나 매립(13.5%)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90.1%)되며 소각(3.0%) 또는 매립(6.9%)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56.2%)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5.1%) 또는 매립(21.8%)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Ⅸ-6).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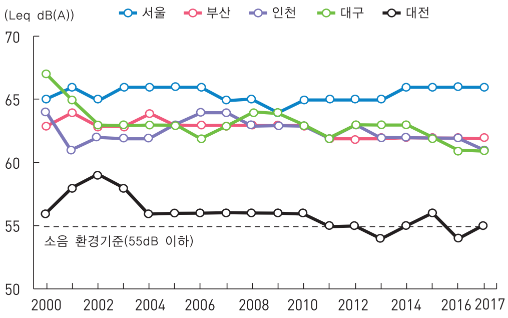


주: 1)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그림 Ⅸ-7).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7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분쟁조정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약 85%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층간소음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진동의 비중이 85.8%이다(표 Ⅸ-6). 그리고 소음·진동 분쟁의 주된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공사장 소음·진동이다(전체 소음·진동 분쟁의 70~80%를 차지).

〈표 Ⅸ-6〉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8

(건)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	기타
1991-2001	366	52	35	0	9
2002	229	26	4	0	4
2003	264	19	8	0	1
2004	206	8	3	5	1
2005	151	11	5	6	1
2006	150	8	3	1	3
2007	142	7	3	15	5
2008	173	8	3	22	3
2009	241	13	2	21	6
2010	150	3	6	12	5
2011	163	7	3	6	5
2012	214	14	6	17	4
2013	154	12	3	19	3
2014	203	5	4	18	7
2015	177	10	2	13	9
2016	122	10	2	25	3
2017	136	3	1	18	2
2018	208	2	4	16	8

주: 1)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 · 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통계자료」, 2018.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2.82%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 동 비율은 2011년에 2.1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1.99%로 하락하였다(표 Ⅸ-7).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

〈표 Ⅸ-7〉 환경분야 예산, 1995-2017

연도	예산액(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1995	17,801	2.39
1997	27,747	2.82
2000	30,581	2.44
2005	35,578	2.12
2006	33,978	1.94
2007	32,837	1.86
2008	36,568	1.87
2009	42,101	1.94
2010	46,740	2.07
2011	49,741	2.11
2012	51,496	2.07
2013	54,458	2.07
2014	56,119	2.04
2015	59,389	2.07
2016	59,695	2.02
2017	60,232	1.99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표 Ⅸ-8〉 환경보호지출, 2004-2016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55	15.5	38.6	26.4	19.5
2005	24,017	2.6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74	17.4	38.4	24.7	19.6
2007	28,675	2.75	18.9	37.7	23.9	19.5
2008	30,188	2.73	19.0	37.4	24.3	19.3
2009	32,629	2.83	17.2	37.9	24.6	20.3
2010	32,880	2.60	17.4	36.8	25.8	20.0
2011	33,784	2.54	17.3	36.5	26.4	19.8
2012	34,547	2.51	18.0	38.8	23.0	20.2
2013	35,169	2.46	16.6	39.2	23.3	20.8
2014	35,586	2.39	17.2	39.9	22.6	20.3
2015	37,025	2.37	17.3	40.8	22.4	19.5
2016	39,931	2.43	17.2	41.5	21.7	19.6

주: 1) 기타에는 토양 ·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 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8).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의 지출은 기업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 2.83%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하였다(표 Ⅸ-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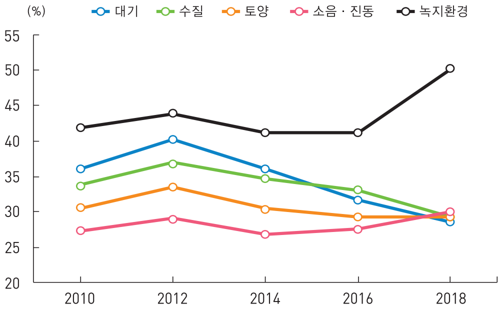
환경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 예산 비중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만족도

환경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객관적인 측정 수치 못지않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의 5개 체감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영역별로 만족도(거주지역의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

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변화 모습에 차이가 있다. 대기, 수질, 토양의 경우 2012년을 정점으로 만족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음·진동과 녹지환경은 2018년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만족도 수준 자체는 녹지환경에 대해서가 항상 가장 높다. 그리고 2012년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던 대기 영역은 2018년에는 최하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Ⅸ-8).

[그림 Ⅸ-8]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편, 5개 영역을 종합한 전반적 만족도(5개 영역 만족도의 단순 평균)는 2010년 33.9%에서 2012년 36.7%로 올라갔다가 2014년 33.9%, 2016년 32.6%로 떨어졌다가 2018년에 33.5%로 다시 올라갔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촌(읍면부) 지역의 만족도가 도시(동부) 지역의 만족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성별로는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의 만족도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표 Ⅸ-9).

〈표 Ⅸ-9〉 지역 및 성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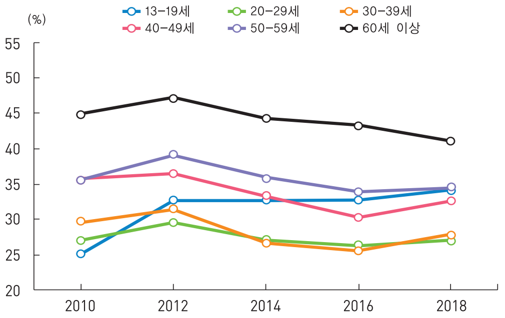
(%)

연도	전반적 만족도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2010	33.9	29.5	54.1	34.3	33.5
2012	36.7	32.0	58.5	36.9	36.4
2014	33.9	29.4	55.6	34.4	33.5
2016	32.6	29.2	49.0	33.1	32.1
2018	33.5	29.9	50.2	34.0	33.1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녹지환경 등 5개 영역별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연령별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에 비해 확연히 높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인데,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만족도는 각각 27.2%와 27.8%로 60대 이상의 만족도 41.0%에 비해 10%p 이상 차이가 난다(그림 Ⅸ-9).

[그림 Ⅸ-9] 연령집단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녹지환경 등 5개 영역별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